

#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이미경\* · 김한배\*\*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Environmental Cognition Patterns through Discourse Analysis Regard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Lee, Mi-Kyung\* · Kim, Han-Bai\*\*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Urban discourse can be used to creat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through open thinking,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It raises both physical and social issues surrounding the urban environment. It can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groups and lead the way to develop a community-oriented urban environment through inter-discourse agreement.

The urban space of Cheonggye Stream has produced a wide range of urban discourse from 2003 to the present. Discourse regarding the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has been approached by fields including landscape architecture, ecology, urbanism, architecture, politics, and economics, among others. This discourse has produced a variety of issues and ranges of debate.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se discussions into related fields and ideological attitudes, analysed their content, and interpreted their meaning. In order to examine the mutual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these discourses by different ideological group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y putting classified versions of discourses into a coordinate diagram. The overall topography showing the present status of Korea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urban environment could therefore be determin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sciplin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ook a middle ground between groups with practical and radical ideologies regarding the Cheonggye Stream project and was a mediator for both poles to find a point of contact. However, participatory discourse requires the disciplines of landscape architecture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discourses on urban environment and take a more active stand corresponding to the zeitgeist and people's sense of public justice.

*Key Words: Urban Discourse, Ideological Group, Compositions of Debate*

---

**Corresponding author:** Mi-Kyung Lee,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Incheon 404-190, Korea, Tel.: +82-32-260-2733, E-mail: lmk811@idi.re.kr

## 국문초록

도시담론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개방적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로 시민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론적인 합의 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을 형성시켜왔다.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접근해 갔으며, 다양한 쟁점들과 논쟁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이념집단 간의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실용적 접근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보존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은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도시설계나 조경 등 기술 분야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양자 간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담론 활성화 추세에 조경분야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독자적이면서도 공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입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제어: 도시담론, 이념집단, 대립구도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도시공간에 관한 정책적 대결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간에 관한 일반인이나 언론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간을 둘러싼 의미해석의 차이가 한국사회 갈등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계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들이 형성되었고, 이들 논의들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평가, 해석하고 공공적 논쟁 구도를 형성해 갔다. 이들 담론을 통해 등장한 '도시장식물', '새로운 개발주의의 치장', '쇼맨십의 공간', '생태공간', '도심하천공원' 등과 같은 키워드들은 우리가 청계천에 대해 가지는 다양한 관점을 대변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현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관련 담론내용과 쟁점들을 정리,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시민집단들의 상이한 이념적 분포 패턴과 담론 주제들 간의 구체적 갈등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현시대 한국도시민의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조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크게 복원이 완료된 시점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전기는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대두된 2002년 6월에서, 청계천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된 시기인 2005년까지 이 시기를 연구의 주된 분석시기로 설정한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을 공론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한겨레신문과 교수신문에 실린 칼럼 및 사설과 기사 48편 그리고 학위논문 및 학술지 및 학회지의 학술논문과 세미나 자료 및 잡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논문과 비평, 논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후기는 2006년 1월에서 2008년 4월까지로 이 시기는 주요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학회지의 학술논문과 잡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논문과 비평, 논설에 대해서 선별하여 분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담론분석이며, 2005년 이후의 자료 분석의 경우는 주된 쟁점사항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에 내용분석과 해석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을 밝힌다. '청계천', '청계천 담론', '청계천 복원'이라는 키워드로 주요 신문 및 학회지를 검색하여 담론을 수집한 결과, 총 106개로 청계천복원사업을 공론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 및 사설과 기사 45편과 대학의 석사학위논문 7편, 대한토목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문화사회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등에

실린 학술논문 28편과 환경과 조경, 미술세계, 인물과 사상, 언론과 사회, 문화과학, 공간 SPACE 등의 잡지에 실린 기사 23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표 1 참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에 관한 환경인식지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분야별 담론분석을 통해 관점별 담론의 주제, 청계천복원을 보는 입장이나 관점, 관심영역 주제에 대해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청계천복원관련 담론관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2차적으로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이념집단 간의 논쟁구조를 살펴보고, 분야별로 담론유형화 과정을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환경인식지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간과 담론, 공간 및 권력 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도시담론의 특

징, 한계점과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이 분석틀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되고 있는 청계천복원 담론의 내용을 정리,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담론분석을 통한 상충되는 가치관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간(間)담론적 부분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 II. 담론과 담론분석의 이해

### 1. 텍스트로서 도시와 담론

이정우(2005)는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해석학적인 공동체, 정치연설문·패플릿·국회보고서 같은 담론들은 '정치가들'이라는 집단을 함축하며, 담론의 다양성은 사회집단의 다양성을 함축한다. 또 새로운 담론들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함축하는 것이다. 담론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집단이 특정한 담론을 만들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체적 차원에서의 사회집단들은 담론적 차원에서의 각종 담론과 맞물려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담론'이란 '공공적 소통의 기능을 가지며 청계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해석,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 또는 견해'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계천에 관한 담론이란 도시의 특성과 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전문화된 설명, 표현, 의미, 해석 구성된 지식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담론은 청계천에 관한 일정한 인식, 재현,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디어에 실린 사실, 칼럼 및 영향력 있는 정치인, 사람 따위의 발언, 연설문, 전문가들의 발언 및 논설문 등을 포함한다.

### 2. 담론이론의 고찰

미셸 푸코는 담론의 본질을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권력과 지식이 만나는 지점을 일컬으며, 담론을 매개하고 담아내는 지식의 생산·재생산 관계는 권력의 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담론적 구성체, 의사소통 구조는 주체들의 지식, 말,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면서 구조적인 분할과 차별화의 내부화 과정을 가진다고 본다(Edgar, A. and Sedgwick, P., 2003).

미셸 푸코의 담론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킨 페어클라우는 푸코보다 종합적으로 담론의 형성과 전파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담론을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로 언어학적이고 기호학적인 구성물로 바라본다. 담론 자체로서 일종의 사회적 실행의 일부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담론은 사회적 실행들과 결합되는

표 1. 담론분석대상

분석대상	출처		담론분석 수	
신문기사 및 칼럼	한겨레신문	기사 및 칼럼 및 사실	45	
	교수신문	기사 및 칼럼 및 사실	3	
학술논문	학회 논문	학위 논문	석사학위논문	7
		환경사회학회	4	
		서울행정학회	2	
		한국지역지리학회	1	
		한국도시지리학회	1	
		시정연구논총	1	
		한국조경학회	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	
		한국문화사회학회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	
		한국행정학회	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	
		동양사회사상학회	1	
		현대미술사학회	1	
		한국산업사회학회	1	
		대한토목학회지	2	
	도시문제	3		
연구원 논문	국토연구원	1		
기타	동양사회사상	1		
잡지	환경과 조경		15	
	미술세계		1	
	인물과 사상		1	
	언론과 사회		2	
	문화과학		3	
	공간SPACE		1	
총계			106	

한도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페어클라우는 주로 미디어 담론과 그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 과정은 묘사(text analysis)와 해석(processing analysis)으로 구분되며, 묘사의 층위에서는 언어적 접근법을 취하고 해석의 경우 미디어 제도 내의 텍스트 생산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을 논한다. 그는 세 가지 차원의 담론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 중심적 담론분석과 사회적 실천의 접합을 시도한다. 텍스트 중심의 담론분석의 단계,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분석단계인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단계, 해석의 층위의 단계인 실천으로서 담론(discourse as social practice)분석 단계인 세 가지 차원의 담론개념은 담론개념임과 동시에 담론분석 절차가 될 수 있다. 각 차원에서 제시된 담론의 개념에 따라 분석을 마지막 차원에서 이를 연결하여 해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Fairclough, 1993).

푸코와 페어클라우가 바라보는 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의 관점을 정립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된 것으로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푸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과정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하려고 한다.

### 3. 한국도시담론의 유형

한국에서 도시에 관한 담론은 여러 분야에서 일찍부터 형성

되어 왔으며, 근대성과 도시성을 연결해 들여다 보기 위한 관점에서 도시담론이 풍요해진 시기는 도시적 문화현상이 성숙되는 1990년대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와 지역공간을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한 '공간정치경제학 관점의 담론', 시장주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도시공간가치의 공공성보다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는 '제도권의 도시정책 담론'과 이와 대립적 입장을 취하는 운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적 도시담론', 그리고 도시의 문화적 구성을 각별히 주목하며, 장소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문화적 문맥을 읽어내려는 '역사문화적 도시담론', 인간과 도시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관점에서 관찰하려는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담론은 주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사회관계의 구조적 반영, 지적·이념적·담론적·상징적 반영으로 생산되고 축적되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부류의 담론은 그 물적인 토대가 정부와 같은 권력층과 자본가층, 중산층적 정서와 지향성을 바탕으로 도시이념이 설정되고 있으며, 그 이념 하에서 도시 관련 연구기관, 정책기관들이 각종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가운데 도시에 관한 주류 이데올로기로서 생산되고 유포된다. 이를 '지배담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에 반해 시민계층, 노동자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장하는 가치나, 비제도권 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비판적인 연구자 집단들이 연대를 통해 생성해내는 각종 학술적 연구와 실천들

표 2. 푸코(Foucault)와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담론이론 비교

구분	푸코	페어클라우
담론정의 및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권력과 지식이 만나는 지점을 일컫음</li> <li>· 담론을 매개하고 담아내는 지식의 생산·재생산 관계는 권력의 망으로 작용</li> <li>· 담론적 구성체, 의사소통 구조는 주체들의 지식, 말,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면서 구조적인 분할과 차별화의 내부화 과정을 가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은 담론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로 언어학적이고 기호학적인 구성물</li> <li>· 담론자체로서 일종의 사회적 실행의 일부로 작용한다고 바라보는 입장</li> <li>· 담론은 사회적 실행들과 결합되는 한도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발휘하는 것</li> </ul>
담론분석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비평, 문화연구 영역 채택되는 담론분석의 중심적 역할</li> <li>· 구성주의적 입장</li> <li>· 현실효과성 없으며, 담론의 익명성, 규칙들의 집합, 질서 형성에 친화하는 구조주의적 한계점을 지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 분석</li> <li>· 1단계: 텍스트로의 담론</li> <li>- 텍스트 중심의 담론분석의 단계</li> <li>· 2단계: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li> <li>-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분석단계</li> <li>-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될 때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석</li> <li>· 3단계: 실천으로서 담론(discourse as social practice)</li> <li>- 해석의 층위의 단계</li> <li>- 미시적 차원: 텍스트 분석</li> <li>- 담론적 실천: 체계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 하는지를 분석</li> </ul>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코와 페어클라우가 바라보는 담론의 관점을 수용</li> <li>·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된 것으로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로서 바라볼 것임</li> <li>· 푸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과정을 분석의 틀로서 수용하여 재구성</li> </ul>	

은 지배담론과 다른 대안적 시각에서의 담론이므로 이를 '대항담론'으로 부르코자 한다.

지배담론 입장에서는 대안 또는 대항담론을 주장하는 논자, 절충안을 제시하는 논자들은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견해를 생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담론에 의해 우리의 도시공간이나 지식체계구조는 지배를 받고 있으며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는 담론의 경우 지배담론과 경쟁, 배척, 적대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증주의적, 기능주의적인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도시의 현실적 상황에서 공공적 논의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비판적 관점과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담론이나 절충적 입장을 가지는 담론의 역할 또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 4. 담론분석의 틀

푸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페어클라우의 담론분석과정을 분석의 틀로서 수용하여 재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텍스트분석의 단계로써 청계천에 나타난 분야별 담론에 관해 분석한다.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의 분야별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도시정책적 담론,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 역사문화 및 장소적 담론, 정치 및 경제학적 담론, 학제적 담론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근거는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II장 3절의 한국도시담론의 유형을 기초로 하였다.

2차 담론분석 단계는 담론실천분석의 단계로 이념집단 간 논쟁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시기별 담론쟁점사항을 파악하기 용이한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 및 사설을 대상으로 2차적 담론실천분석을 실시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기 전의 준비단계인 2003년 이전의 '준비기', 청계천복원 공사가 착공되어 완공되기까지의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인 '전개기', 마지막으로 2005년 완공된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청계천과 시민 사이에서 직접접합의 관계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인 '형성기'로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생성시기를 나누었다. 각 시기별 담론의 쟁점사항과 대립구도와 담론간의 상호관계성을 도출하며 이와 함께 앞서 도출된 관점특징에 따라 대립구조를 분석하였다. 1, 2차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담론 지형도를 작성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인식지형의 도출 및 도시 환경성의 지속가능한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로 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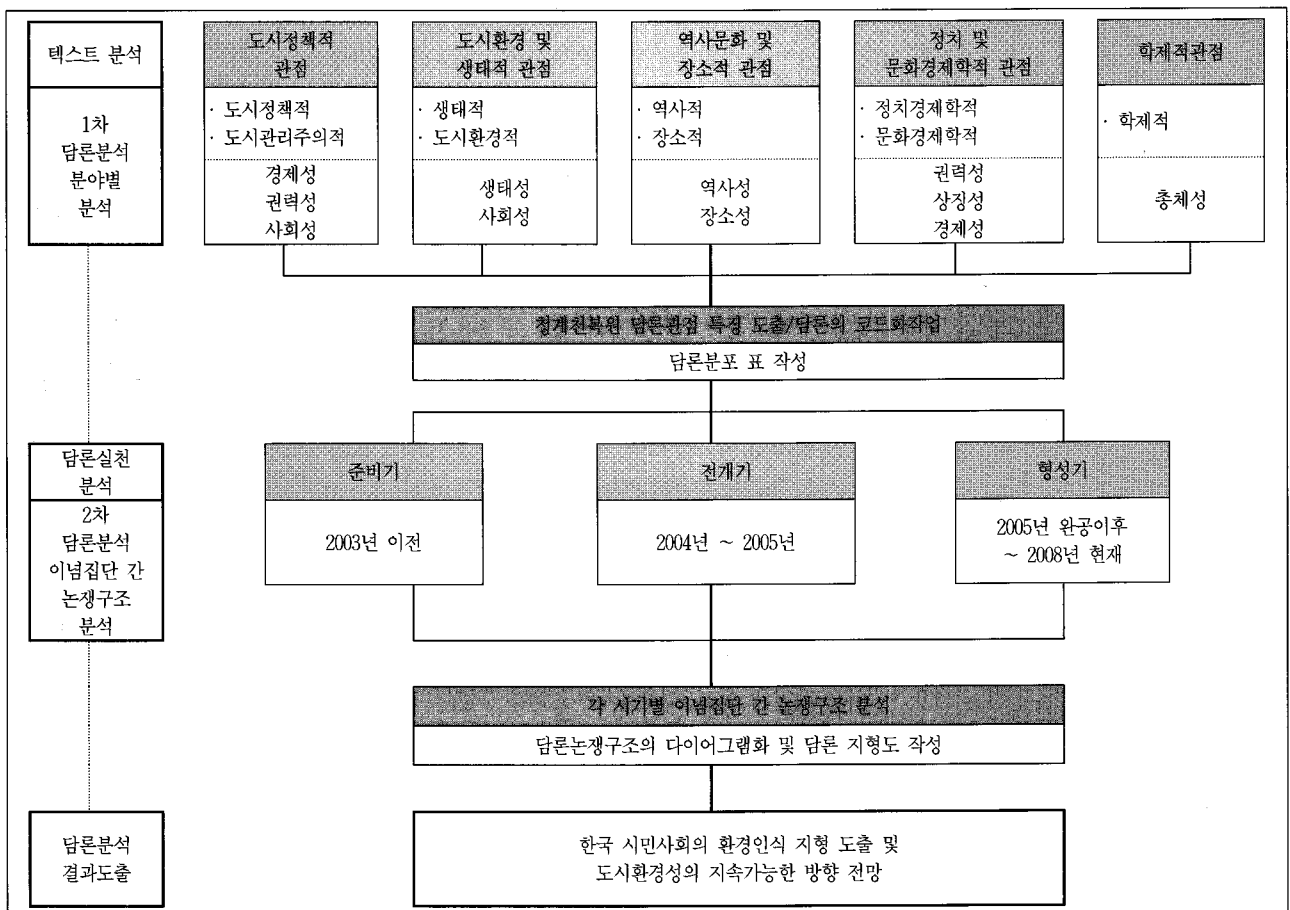


그림 1. 담론분석 틀

### III.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의 환경인식지형 분석

#### 1.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의 분야별 유형화 및 특징

##### 1)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의 분야별 유형화

###### (1) 도시정책적 관점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의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장주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도시공간가치의 공공성보다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도시정책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세부 관점으로 도시정책적 관점과 도시관리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도시정책적 관점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을 이론적 관점으로 깔고 도시를 정책의 대상으로 논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은 청계천복원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복원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침체되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복원 전 청계천과 그 주변의 상황을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경제적인 성공과 삶의 질의 향상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담론의 세부 관점은 청계천복원관련 추진 주체<sup>1)</sup>들이 주장하는 환경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조경, 관광, 지리, 문화 관련 분야에 소속된 논자들이 주장하는 장소성에 기반을 둔 개발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양윤재(2003), 박희수(2005), 최막중(2003)이 전자 관점에 속하며 청계천복원사업의 궁극적 사업목표를 하천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도심의 재활성화로 둔다. 후자의 경우는 도시 마케팅, 장소 마케팅<sup>2)</sup>의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가진다. 조경진(2006)은 '문화친화적 조경이 요구된다.'라는 글을 통해 청계천복원, 서울광장조성, 서울숲 조성 등을 도시마케팅적 접근방법을 취한 도시조경프로젝트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최승담(2002)은 경제주의적 시각을 가진 개발주의론 담론을 펼치기 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장소적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도시관리주의 관점은 도시행정가적 입장에서 도시를 하나의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정책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동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며, 최근에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 다양한 이해 조절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의가 되면서 갈등도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바라보자는 관점이다. 담론의 세부 관점은 청계천복원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장하는 개발논리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과 복원은 찬성하지만 행정방식

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담론 속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논리가 깔린 도시관리론을 주장하는 특징을 지닌다. 청계천 추진 주체의 경우, 대부분 이런 관점을 가지며 인간으로의 도시관리(황기연, 2003), 21세기적 도시관리 패러다임(박희수, 2005), '하향식 행정'에서 '상향식 도시경영'으로 마인드 전환을 이루는 기업가적 정부(양윤재, 2003)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환경과 사람을 중시하는 행정방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후자의 경우 현재의 사업방식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 개발논리의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사업, 개발정치 등의 텍스트를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을 주장하며, 논자로는 강은숙(2002), 조병래(2003, 2006), 김진애(2005) 등을 들 수 있다.

###### (2) 도시환경 및 생태적 관점

이 관점은 생태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을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과 청계천복원을 도시공원, 친수공간 등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도시환경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생태적 관점은 청계천복원 방향 및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비판론자와 이들과는 반대 입장을 가지는 긍정론자로 나누어진다. 비판론자들은 주요 복원담론 생성자(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서울시)의 개발방식과 목표, 성과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다. 자연과 환경을 수단으로 여기는 도시정책적 관점에 강하게 비판을 가하며 환경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생태계를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개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환경생태 부문의 조경학, 환경공학 등 분야의 생태론자, 환경론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직강하천, 산책로 위주의 호안 조성, 인공둔치, 인공하도, 인위적 유량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긍정론자들은 도심자연의 회복, 생물종의 다양화, 도심은도저감 효과 등을 들며 청계천복원의 의의를 높이 산다. 안병욱(2003)은 복원에 관한 이분법 대립구도에서 탈피하려고 하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담론을 생성해 내었다. 청계천을 복원생태학<sup>3)</sup>적 관점에서 자연의 정원화<sup>4)</sup>와 사회적 실험으로서 간주한다. 자연의 정원화(gardening of nature)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사회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는 복원생태학의 주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할수록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보존생태학 이론적 근거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진정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아닌 자연의 정원화의 과정으로서 평가한다. 사회실험으로서의 생태복원의 성패는 이해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모으는 일에서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환경적 관점은 대체적으로 청계고가를 해체하고 물을

호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청계천을 생태적 문화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복원된 청계천을 삭막했던 도심 속의 새로운 도시공원, 여가공간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환경보존과 개발사이의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편에 위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개발론자 입장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주요 논자는 도시, 경관, 문화 부문의 조경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논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박승준(2003), 임승빈(2004), 배정환(2007) 등이 이 관점에 속하며, 임승빈(2004)은 21세기에 다시 돌아오는 청계천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뒤 '새롭게' 돌아오는 하천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 시점에서 청계천은 박제를 만들 듯 과거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닌 생태적 문화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배정환(2007)도 청계천의 현시대적인 적절한 평가를 내린다. '청계천은 공원이자'라는 글을 통해서 "도시공원은 청계천의 가장 정직한 이름이며, 동시에 청계천의 가능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청계천을 도시공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청계천이 도시와 접촉하고 도시로 침투하는 대안적 유형의 공원으로 변모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 (3) 역사문화 및 장소적 관점

역사문화 및 장소적 관점은 청계천복원의 의의를 역사 및 장소의 진정한 복원에 두며 청계천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거나 활용하지는 가치관을 가지는 입장을 취한다. 이 관점의 세부 관점은 오간수교, 수표교 등의 청계천의 구체적인 역사유물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역사적 관점과 청계천 주변의 도시맥락, 청계천의 공구 상가들, 청계천 주변의 주민 또는 상인들과 같은 인문생태계의 측면에 관심을 두는 장소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역사적 관점은 문화재원형 복원론, 대안적 역사복원론, 역사경관 보존론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주요 주제로 문화재원형 복원론의 경우는 호안석축, 광고, 수표교, 장통교, 오간수문의 복원을 대안적 역사복원론의 경우 창조적, 완결적 대안, 비보조경, 하천준설, 제방축조, 조산과 연못, 하구의 목장 등을, 역사경관 보존론은 역사경관보존, 고밀도 재개발 반대 등을 주요 담론 주제로 다룬다.

장소적 관점은 청계천 주변 도시맥락(장소성, 역사성)을 고려하지는 입장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시 청계천 주변의 도시 조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계고가 주변의 공구상가들은 1960~70년대 경제성장에 한몫을 했던 곳으로 이는 곧 우리 역사문화의 한줄기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로 사회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 조경학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전상진(2003), 주강현(2003), 박승준(2003), 강홍빈(2004), 조명래(2005)는 장소보존론적인 관점을 지닌다. 유상오(2003), 장보혜(2006),

홍순민(2004)은 주변부 재개발과 결부시켜 청계천복원사업을 조망하면서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론을 주장한다.

### (4)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관점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수단으로 도시공간을 권력 행사의 장으로 이용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의 세부 관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문화를 경제 또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화경제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청계천 복원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여긴다. 청계천의 복원과 그에 따른 재개발이 환경문제의 개선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구조화는 여전히 환경적 위협성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 존속시킴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복원을 통해 성장, 발전 중심의 도시 패러다임을 보전과 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복원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복원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복원과정에서 민주적, 개방적 절차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제도권 학회와 연구기관들의 정책지향적 도시담론과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도시담론은 도시공간을 권력과 상징자본의 표출의 장으로서 바라보는 사회학자, 도시계획학자 등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대표적인 논객으로 조명래(2003, 2005)와 홍성태(2003), 강홍빈(2004), 김영민(2008), 김진애(2005)를 들 수 있다.

문화경제학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활용한 정치적,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정치적 관점과 문화를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주장하는 문화산업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관점에서 문화의 의미는 협의의 의미로 건축양식, 공공미술, 조형물, 페스티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청계천에서 재현되는 문화적 상징 생산물로 정의한다. 이 관점의 담론은 복원이후 2006년을 기점으로 대두되면서 생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청계광장에 설치된 올덴버그의 스프링스 작품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루며, 청계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및 축제에 대한 담론,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청계천 발전방안을 생성하는 담론이 대부분이다. 논자로는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논하는 담론생성자로는 대부분 미술학 분야에서 이정훈(2007), 이윤희(2007)를 들 수 있고, 문화경제학적 관점으로 청계천을 조망한 논자는 부동산학 분야에서 주를 이루며 김은자와 최문석(2006)을 들 수 있다.

### (5) 학제적 관점

청계천에 관한 담론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거나 주장

하는 관점인 학제적 관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연구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서서 청계천복원사업을 논하기보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을 가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윤성복(2004)과 정성원(2004)은 개발과 보존 사이의 절충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정성원의 경우는 전통(복개), 근대(복원을 통한 이윤창출)의 조화 가능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윤성복은 환경개혁주의(경제성), 심층생태주의(생태성), 생태사회주의(사회성)로 구분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을 조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청계천복원관련 담론특징 및 담론생성 집단

1차 분석 결과, 청계천복원관련 분야별 담론들을 그 내용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분류하여 담론 특징을 '실용주의', '급진주의', '보존주의', '절충주의'의 총 4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실용주의'는 개발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인데, 여기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가지는 실용적, 경제적 효과에 보다 가치비중을 두고 조경 등 환경설계는 단순히 화장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 집단과 같은 집단이 포함된다. 둘째, '급진주의'는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관점으로, 청계천 복원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여긴다. 도시개발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차이를 서로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어 추진하는 민주적 정책운영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진다. 주로 제도권 학회와 연구기관들이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진보론자 집단(정치경제학자, 시민단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보존주의'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진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조경, 환경, 생태학 분야에서의 생태적 복원을 주장하는 논자와 역사, 문화, 사회학 분야에서 문화재 원형 복원을 주장하는 논자 그리고 조경, 지리, 사회, 역사학 분야의 장소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포함된다. 넷째, '절충주의'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청계천을 복원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도시공원이며 도시적 대안공원, 복원이 아닌 문화적으로 개선된 청계천 등으로 정의하면서 21세기의 자연복원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하였다. 이 관점의 담론을 생성하는 논자는 전문가집단 중 조경 및 도시설계집단, 사회학, 지리학, 부동산학 등이 해당하며, 이들 집단 속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관점을 보였다.

2.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의 이념집단 간 논쟁구조

청계천복원사업의 시기별 담론 대립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청계천복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착공이 되기 전까

지의 시기인 '준비기'와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고 갈등 대립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에서 2005년 완공 전에 해당되는 '전개기', 마지막으로 2006년 이후인 청계천이 완공된 시점 이후, 시민들과 직접적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형성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로 담론의 쟁점사항과 대립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시기별 쟁점사항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담론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청계천복원 관련 담론의 공론화에 기여한 한겨레신문과 그 밖의 청계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게재되었던 교수신문의 신문기사 및 사설과 칼럼 4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청계천복원에 대한 초기 논의는 1991년에 이희덕 교수(한국사)가 최초로 제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997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 노수홍 교수는 박경리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학술적 검토를 시작하였고, 2000년 상반기 청계천 살리기연구회 주요 회원인 시정개발연구원 교통 분야 황기연 연구원, 한국교원대 토목학 정동양 교수, 환경계획분야 이무춘 교수 등이 노 교수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게 된다. 2000년 9월 1일에서 2일 날 복원의 역사성, 물 처리 방식,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분석, 경제성 평가, 관련 정책 및 법에 대한 주제로 열린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청계천복원 논의를 현실화 시키는 계기가 된다(한겨레신문, 2002a).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3월에는 한겨레신문과 청계천연구회가 함께 기획기사로 청계천 복원문제를 연재하면서 본격 제기하게 된다. 4월 9일 한겨레신문의 기획시리즈 '청계천에 생명을'을 시작으로 공론화를 발전시킨다. 2002년에는 실현가능성 및 복원방향 논쟁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문화재, 주변부의 고층화, 공사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대두되었고, 청계천추진주체집단과 상인집단(점포, 노점)과 인근 주민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2002년 3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걸친 한겨레가 기획하고 RPI 리서치플러스연구소가 수행한 청계천복원관련 서울시민 여론조사 이후, 비판시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특히 8월 22일 노점상 박봉규씨 분신자살사건으로 상인과 서울시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2002년 11월 상인을 위한 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결성하게 된다. 7월 이명박 시장 취임과 함께 자문 역할을 하는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연구부문을 담당하는 청계천복원 지원연구단이 결성되면서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식 추진체계가 구성된다(한겨레신문, 2002b).

2003년은 환경복원, 문화재복원, 상인 및 노점상 대책 논쟁 등 다방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주된 갈등 구조는 청계천복원의 추진 주체(서울시)와 대표적 시민단체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로 칭한다)'가 대립을 시작한다. 2월 '청계천복원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부문' 발표이후



비판시각이 고조되었다. 서울시민의 75%가 문화재 복원에 따른 공사 지연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홍수대책, 교통, 재원, 상인에 대한 종합적 지적이 불거지는 시기이다. 시민위와 시민단체는 올바른 역사복원요구, 시민 참여형 개발과 착공연기를 요청하기도 한다(한겨레신문, 2003a). 2003년 7월 시민위의 역사문화 분과는 당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이 아닌 개발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추진본부와의 갈등을 지속하게 된다(한겨레신문, 2003b). 9월 문화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또 하나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로 칭한다)는 복원방식 전면재 검토를 요구하였고,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조선 영조 때를 기준으로 청계천의 옛 모습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2a 참조).

전개기에 해당되는 2004년에는 역사문화 복원에 관한 논쟁이 주를 이루었으며, 청계천 역사문화 복원과 관련하여 갈등구조는 서울시와 '시민위', '청계천연대'가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석축 보존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표교 증축 흔적과 모전교 양쪽 석축이 발굴되면서 문화재 관련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원형복원을 주장하였고, 문화연대·참여연대·서울환경연합 등 11개 단체와 시민위는 발굴조사 이후 설계안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한겨레신문, 2004a).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묵살하였고, 21개의 현대식 다리와 6만㎡의 녹지를 갖춘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3월 5일 시민위는 무리한 복원공사에 따른 문화재 훼손혐의로 이명박 시장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방안자문을 담당할 별도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하여 12일부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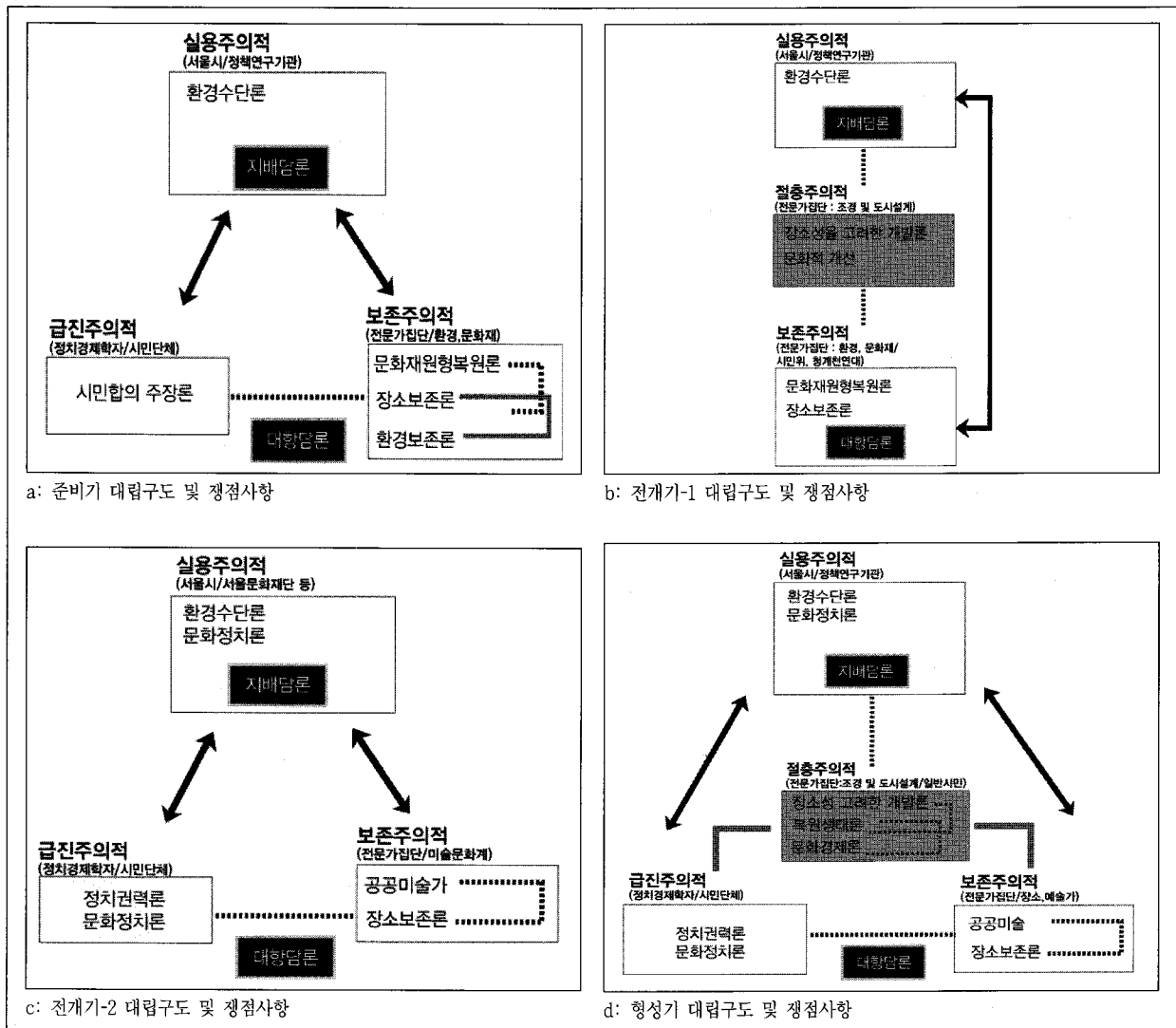


그림 2.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에 나타난 이념집단 간의 시기별 상호관계  
 범례: ■ 대립관계, ▨ 동조관계, □ 상호보완관계

을 시작하게 하였다(한겨레신문, 2004b). 그러나 시민위가 상기의 문화재 보존전문가위원회를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면서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위원 26명이 집단 사퇴<sup>5)</sup>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한겨레신문, 2004c). 10월 시민위 2기가 출범<sup>6)</sup>하게 되고, 11월에 청계천 옛 다리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한겨레신문, 2004d). 청계천연대는 원형대로 복원 주장을 고수 한다(한겨레신문, 2004e)(그림 2b 참조).

2005년에는 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청계천복원과 관련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이다. 이와 함께 주무 부시장의 비리에 관한 사안이 불거지고 청계광장에 설치될 상징조형물에 관한 논쟁구도가 형성된다. 주된 대립구도는 청계천 올덴버그 조형물 선정과정이 문화적 공론화 과정이 배제된 불도저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미술문화계와, 서울시 또는 이를 대항한 서울문화재단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졌다(한겨레신문, 2005h).

이 시기의 갈등구도는 청계천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와 비판적으로 보는 자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의 경우는 개발주의시대 마감과 또 하나의 개발주의라는 식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2005a).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생태, 환경, 문화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이며, 실제 이용자와 행정가들, 주변 상권에 속한 상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2005b). 또한 예술문화인들은 청계천거리에서 행해지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거리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2005c). 하지만,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청계천의 안전문제와 유지관리문제를 제기하고, 환경 및 생태적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도 있었는데, 상기의 긍정적 평가집단과 이들과는 내용적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한겨레신문, 2005d; 2005e; 2005f; 2005g)(그림 2c 참조).

2005년 막바지(9월 30일)에 사업이 준공된 후, 2006년 이후의 '형성기'에는 청계천 이용객인 일반시민들의 대체적인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운영관리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청계천의 관광 명소화를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문화체험 및 여가공간 역할 활성화 등 운영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청계천의 향후 과제와 시민참여 측면의 미래담론의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 논의들이 담론의 대부분을 이루었다(한겨레신문, 2006a). 특히, 이 시기의 새로운 쟁점사항으로는 상징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와 미술문화계의 논쟁이 가장 큰 대립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도시 공간과 공동체 디자인으로서의 공공예술'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올덴버그의 '스프링' 설치까지 건축, 디자인, 미술 측면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였다(한겨레신문, 2006d).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로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상권호재로 명동의 플래그쉽스토어가 확산되었

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청계천과 주변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담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한겨레신문, 2006c).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에 따른 평가에 있어 시민사회 전반이 긍정적 평가로 돌아서는 시기로 보인다. 또한 청계천의 공공 문화적 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복원 시 참여한 전문가 모임 '청계천포럼'이 '청계천의 미래'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대 소속 정동양 교수는 생태적 측면에서 하천 단면의 다양화와 수심 높이를 현재보다 깊게 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동대문포럼운영위원장이었던 유상우는 청계천과 동대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동대문운동장 공원을 주장하였다. 연세대 노수홍 교수는 청계천연구재단을 통해 타도시의 하천 복원 사업 자문을 해주는 등 홍보·교육해야 함을 제안하였다(한겨레신문, 2006b).

또한, 문화재청은 서울 4대문 구역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고층을 허용하는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승인하는 모순된 문화행정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적 측면에서는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청계천이라고 평가하면서, 청계천의 설치미술, 축제, 역사,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며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향후 패션쇼, 워터스크린, 프린지페스티벌과 같은 축제, 청계천주변 창작 스튜디오 설치 등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을 조성하자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에티켓 미흡으로 시민의식의 고양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2006e)(그림 2d 참조).

### 3. 청계천복원 담론의 환경인식 지형 분석결과

유형화시킨 담론들을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담론의 특징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인식지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담론유형을 분류하여 코드화시켰다. 도시정책적 담론을 유형 A,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은 유형 B, 역사문화 및 장소적 담론은 유형 C,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담론은 유형 D, 학제적 담론은 유형 E로 구분하였다. 하부에 속하는 세부 관점들의 경우 A-1, A-2, B-1, B-2와 같이 하였으며, 하부 관점들은 다시 A-1-a, A-1-b와 같이 코드화를 시켰다(표 3 참조). 각 집단들이 어떤 관점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지 해석하기 위해 실용주의, 급진주의, 보존주의, 절충주의 4가지 입장을 사분 좌표에 각각 영역화시키고 코드화시킨 각각의 담론 유형들을 이 좌표에 배치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한 담론지형도를 작성하였다(표 3, 그림 3, 4 참조).

다섯 가지 유형화시킨 담론과 세부 담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III장 1절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모든 대형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참여가

표 3. 분야별 담론유형의 코드화

유형 A	도시정책적 담론	
1. 도시정책적 관점	a. 환경수단론	실용주의
	b. 장소성 고려한 개발론	절충주의
2. 도시관리주의적 관점	a. 개발논리 도시관리론	실용주의
	b.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관리론	보존주의
	c. 갈등관리론	실용주의
유형 B	도시환경 및 생태적 담론	
1. 생태적 관점	a. 환경수단론	실용주의
	b. 복원생태론	절충주의
	c. 환경보존론	보존주의
2. 도시환경적 관점	a. 복원생태론	절충주의
유형 C	역사문화 및 장소적 담론	
1. 역사적 관점	a. 문화재원형복원론	보존주의
	b. 역사경관보존론	보존주의
	c. 대안적 역사복원론	절충주의
2. 장소적 관점	a. 장소보존론	보존주의
	b. 장소성 고려한 개발론	절충주의
유형 D	정치 및 문화경제학적 담론	
1. 정치 경제학적 관점	a. 정치권력론	급진주의
2. 문화 경제학적 관점	a. 문화정치론	급진주의
	b. 문화경제론	절충주의
유형 E	학제적 담론	
1. 학제적 관점	a. 학제론	절충주의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에 청계천복원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경우에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는 '급진주의'와 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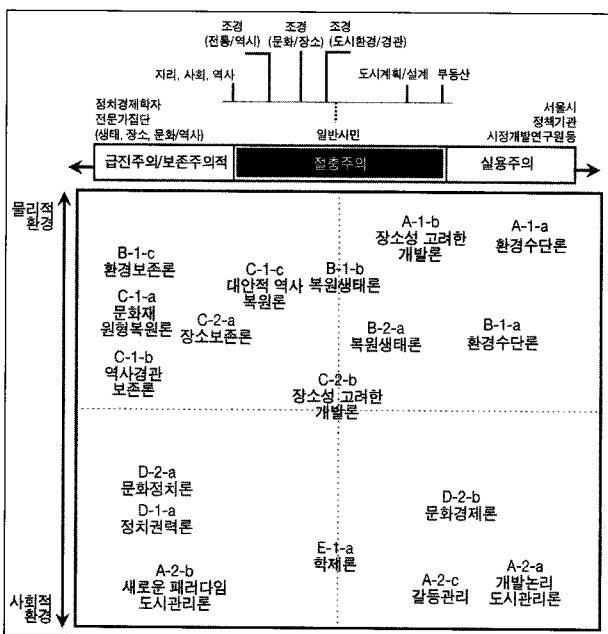


그림 3. 청계천 담론의 이념집단 간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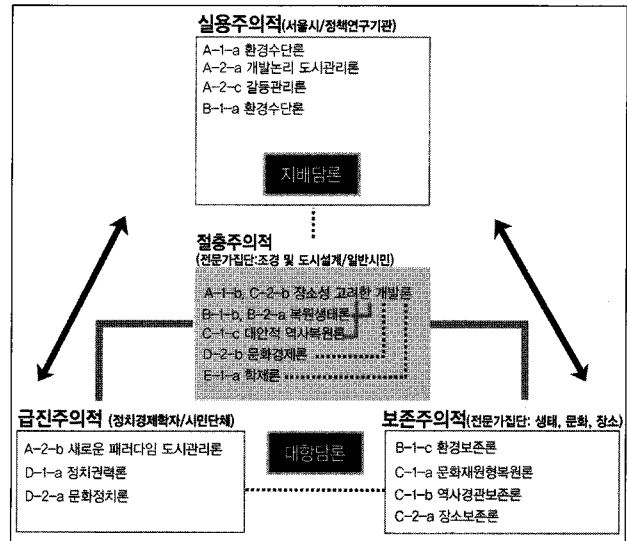


그림 4.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 결과

범례: ■ 대립관계, ▨ 동조관계, ▤ 상호보완관계

수단으로 보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지닌 '실용주의'는 가장 대척점에서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었다(그림 3의 1상함과 3상함). 한편, 복원은 찬성하지만, 생태적, 문화적 복원의 수준과 가치에 집중하는 원형복원론을 주장하는 논자들과 실용주의의 관점을 지닌 논자집단도 상호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가 집단 중 조정 및 도시설계 쪽에서 주장하는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론, 문화 경제적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복원생태학적인 관점의 경우에는 보존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절충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의 원점과 Y축). 절충주의적 입장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기회주의적 입장만은 아니며 도시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장소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을 주장하는 등,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실용주의적 담론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또한 환경, 문화, 장소의 원형 복원을 중요시 여기는 보존주의적 관점과 시민참여와 개발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간담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그림 3의 2상함과 3상함). 이를 통해 절충주의 담론은 대립구도, 갈등구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참조).

#### IV. 결론

청계천복원은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부터 완공된 이후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담론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익집단 간 조정의 문제, 분야 간 이념집단 간 의견 수렴의 문제, 성과주의의 전이행정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

대응함에 있어 조경 및 도시환경설계분야에서도 역할 증진을 위한 성찰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청계천복원관련 분야별, 이념별 담론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공환경 조성 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업 주체로서의 서울시와 산하정책연구기관의 담론의 기본 입장은 실용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시민단체와 관련학자들은 보존주의와 급진주의적 담론들로 사업주체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조경분야는 도시설계분야와 함께 실무의 주체로서 양자 간의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해 왔으며, 보존주의, 급진주의, 실용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대립구도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복원사업은 특히, 조경분야가 하나의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었던 만큼 조경분야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극대화되면서 조경분야에 대해서 '화장술적인 설계', '생태적·문화적 고려 부족', '시설물 위주의 조경', '식재설계의 전문성 부족' 등 비판적 표현들을 도처에서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담론 진행과정을 통해 우리는 청계천 복원이 역사적, 생태적인 공간, 도시공원적 성격으로서의 공간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경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념집단의 주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공공적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 보다 진보적 입장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와 같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시민사회 전반의 첨예한 담론전개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청계천은 완결된 사업이 아닌 진행형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민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문화적인 도시공공공간으로의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계천으로 일상화된 도시담론의 물결은 앞으로 대두될 무수한 도시환경정책의 추진 방식에 소통적 공동체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효율적 시민담론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해 나갈 것이 예상되며, 이것이 미래 도시행정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주 1. 청계천추진본부, 청계천추진위원회, 청계천지원연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주 2. 장소마케팅은 공간을 장소화하는 전략, 즉 장소성을 기획하는 문화전략이다. 장소가 지니는 다중성과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을 활용해 물리적 공간 환경, 사람과 커뮤니티,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기획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이무용, 2006).  
 주 3. 복원생태학자들은 자연의 본질이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변화에 있다는 현대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조건에서 자연현상에의 인간의 간섭은 정당한 것 일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정원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사회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는 복원생태학의 주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할수록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보존생태학의 이론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주 4. 생태복원은 미국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토지를 재

야생화(re-wild)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탈리아에서는 생태 복원을 인간의 활동을 복원계획에 최대한 포함시켜 토지를 재정원화(re-garden)하는 것이 복원의 주된 목표다(Hall, 2000:165-172, 안병욱 재인용 2003:198).

주 5.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복원이 빠져버린 청계천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희덕, 강병기 부위원장, 노수홍과 최철 부위원장, 김영주 역사문화분과위원장, 정동양 건설안전분과위원장 등이 집단 사퇴한다.  
 주 6. 시민위 공동위원장에는 김정배 고구려재단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와 이춘호, 여성유권자연명 명예회장, 역사 문화분과위원장에는 최종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자연환경분과위원장에는 박석순 이대 환경학과 교수, 건설안전분과위원장에는 김홍석 신우엔지니어링 고문, 교통분과위원장에는 원재무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 회장, 도시계획분과위원장에는 임창복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시민의견분과위원장에는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새 위원회는 69명의 연임자와 51명의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 인용문헌

1. 강은숙(2002) 청계천 복원의 환경정책적 함의. 서울행정학회지 13(3): 265-282.  
 2. 강홍민(2004) 이명박시장 재개발사업 고삐 풀린 개발주의. 한겨레신문 2004년 6년 7일.  
 3. 광승준(2003) 삶의 질을 위한 청계천 복원.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3일.  
 4. 김영민(2008) 문화비평: 실내화의 괴물들. 교수신문.  
 5. 김은자, 최문석(2006)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원청계천의 문화경제학적 발전방안. 시정연구논총.  
 6. 김진애(2005) 도시 데코레이터 이명박, 청계천복원은 일렀고 도심개발은 틀렸다. 인물과 사상 7(87): 67-78.  
 7. 박희수(2005)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사업: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개선 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8. 배정환(2007)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청계천, 공감각의 도시경관 조경.  
 9. 안병욱(2003) 청계천 복원의 사회학, 자연의 정원화와 사회적 실현설로서의 청계천 복원. 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통권 4호.  
 10. 양윤재(2003) 청계천 복원 사업의 친환경성.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임승민(2004) 청계천 복원 박경리선생 주장에 대해 조경인 임승민씨 반론. 동아일보 2004년 3월 16일.  
 12. 이무용(2006)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13. 이윤희(2007) 클래스 올덴버그의 청계천 스프링 작품분석을 통한 도시환경 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정우(2005) 담론의 매혹 주제들의 백가쟁명.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6일.  
 15. 이정훈(2007)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스프링(Spring)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유상오(2003) 청계천 되살리기의 속도와 공감대. 한겨레신문 2003년 8월 11일.  
 17. 윤성복(2004) 소외, 청계천 복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2(1): 240-276.  
 18. 정성원(2004) 전통, 근대, 탈근대의 결합 -청계천 복원 담론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학회 동양사회사상 제9집. pp. 81-108.  
 19. 조경진(2006) 조경 사회 디자인: 문화친화적 조경이 요구된다. 조경.  
 20. 조명래(2003) 청계천 복원의 사회학: 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 pp. 130-165.  
 21. 조명래(2005)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한계. 대한토목학회지 53(11): 140-155.  
 22. 조명래(2006) 청계천 복원: 도심재생인가 생태복원인가?. 한국의 전망 제1호. 서울: 새로운 사람들. pp. 160-180.  
 23. 전상진(2003) 세대 간격 좁히는 청계천 복원.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18일.

28. 정일준 역(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Michael Foucault., Theory of Power. 서울: 새물결.
29. 주강현(2003) 생활의 지문을 지우는 청계천 복원. 한겨레신문 2003년 7월 28일.
30. 최막중(2003) 복원 계획 성급하다. 교수신문 2003년 3월 17일.
31. 최승담(2002) 청계천 복원의 관광적 의미와 수변공간 조성 방향. 관광연구논총: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제14호. pp. 33-45.
32. 한겨레신문(2002a) 청계천 복원 누가 처음 꿈꿨을까?. 2002년 6월 27일.
33. 한겨레신문(2002b) 서울시, 청계천 주민상인협의회 발족. 2002년 12월 29일.
34. 한겨레신문(2003a) 청계천 제대로 살리는 길. 2003년 4월 10일.
35. 한겨레신문(2003b) 수표·광통고 그대로 복원해야. 2003년 7월 17일.
36. 한겨레신문(2004a) 수표교 증축 흔적 모전고 양쪽 석축 발굴. 2004년 2월 9일.
37. 한겨레신문(2004b) 문화화 보전 위원회 내일부터 본격 활동. 2004년 3월 10일.
38. 한겨레신문(2004c) 청계천복원 시민위 집단 사퇴. 2004년 9월 16일.
39. 한겨레신문(2004d) 청계천 시민위 2기 출범. 2004년 10월 20일.
40. 한겨레신문(2004e) 청계천 "신교량 건설 중단 원형대로 복원". 2004년 11월 18일.
41. 한겨레신문(2005a) '청계천 새물맞이' 엇갈린 두 시각. 2005년 10월 3일.
42. 한겨레신문(2005b) 청계천 물길에 외식·유통업 '웃음길'. 2005년 10월 4일.
43. 한겨레신문(2005c) 청계천 달구는 거리예술가들. 2005년 10월 26일.
44. 한겨레신문(2005d) 청계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05년 10월 26일.
45. 한겨레신문(2005e) 수원천, 북개구가나 뜯어내 완전복원을. 2005년 10월 11일.
46. 한겨레신문(2005f) 청계천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2005년 10월 3일.
47. 한겨레신문(2005g) 청계천 유지·관리비 한해 70억. 2005년 10월 6일.
48. 한겨레신문(2005h) 청계천 들머리 '올덴버그 조형물' 논란. 2005년 11월 30일.
49. 한겨레신문(2006a) 청계천에 미국 작가 조형물이라니 '이명품' 시장이다. 2006년 1월 22일.
50. 한겨레신문(2006b) "청계천 수심 다양하게 해야" 미래위한 대토론회. 2006년 1월 18일.
51. 한겨레신문(2006c) '브랜드 세계' 체험하실 분! 명동으로 오세요. 2006년 1월 10일.
52. 한겨레신문(2006d) 청계천 '올덴버그 조형물' 향의 이벤트 잇따라. 2006년 1월 20일.
53. 한겨레신문(2006e) 문화가 흐르는 '디지털 청계천'. 2006년 9월 13일.
54. 황기연(2003)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 논점. 도시문제 38(418): 11-20.
55. 홍성태(2003) 사회청계천 복원의 사회학 청계천의 공간문화: 파괴, 정제, 그리고 회망.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호. pp. 211-230.
56. 홍순민(2004) 교수논평 -청계천을 '중간'하자. 교수신문 2004년 4월 23일.
57. Edgar, A., P. Sedgwick(2003) Key Concepts in Cultural Theory. 박명진, 이영욱(역), 문화이론사전. 한나래, 2003.
58. Fairclough, N.(1993)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cy Press.

---

원 고 접 수 일: 2009년 1월 2일  
 심사 일: 2009년 1월 23일  
 게재 확정 일: 2009년 1월 31일  
 3인의명 심사필